

# 50<sup>만</sup>

---

문화·예술 분야

## News Clipping “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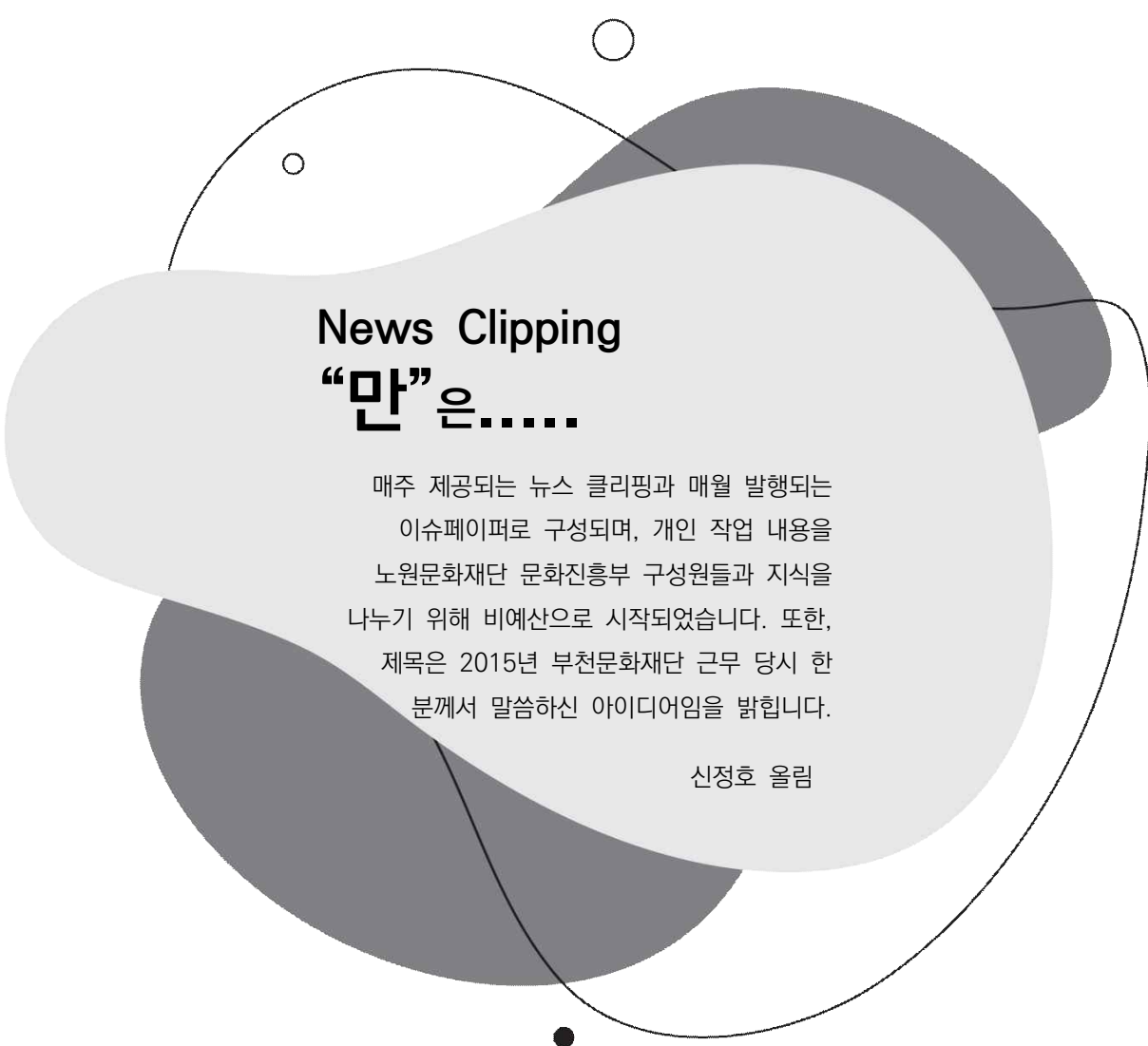
2026.04.06.

---

'만 시간의 법칙'을 의미하는 '10000(만)'의 News Clipping은  
매주 문화예술 분야 주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10000

---



## News Clipping “만”은.....

매주 제공되는 뉴스 클리핑과 매월 발행되는  
이슈페이퍼로 구성되며, 개인 작업 내용을  
노원문화재단 문화진흥부 구성원들과 지식을  
나누기 위해 비예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제목은 2015년 부천문화재단 근무 당시 한  
분께서 말씀하신 아이디어임을 밝힙니다.

신정호 올림

〈2026년〉

(제50호) 확장되는 문화정책, 시민과 예술인 중심으로 ..... 2

(제49호) 지역문화정책 전환과 예술지원 공정성 ..... 9

(제48호) 확장의 시대, 문화정책의 자립을 묻다 ..... 15

(제47호) 문화정책은 지금 ‘더 크게’ 가는 데 몰두하고 있지만, 과연 ‘더 오래’ 갈 준비는 되어 있는가 ..... 22

(제46호) 숫자는 커졌지만 삶은 더 풍요로워졌는가 ..... 29

(제45호) 확장의 시대를 넘어, 구조를 완성할 시간 ..... 36

(제44호) 속도는 빨라졌다고 하지만, 방향은 선명한가 ..... 43

(제43호) 성과를 소비하는 문화정책에서, 기반을 축적하는 문화정책으로의 전환 ..... 50

(제42호) 성과 이후의 문화정책, 무엇을 재설계할 것인가 ..... 57

(제41호) 확산은 시작됐다는 확산, 그러나 지속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 64

〈2025년〉

(제40호) 다양한 사회 변화 신호 속에서 드러나는 지속가능성의 조건 ..... 69

(제39호) 예산 확대의 시대에서 생태 전환의 시대로 ..... 71

(제38호) 지역문화의 지속가능성은 재정 구조 개혁에 달려 있습니다 ..... 74

(제37호) AI에 쏠린 국가, 문화와 돌봄은 어디로 가는가 ..... 79

(제36호) 문화균형발전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한 시점 ..... 84

(제35호) 균형 잃은 문화정책, 지속 가능한 문화국가로 가는 길을 다시 묻다 ..... 89

(제34호) 균형과 지속가능성의 재정립 ..... 93

(제33호) 지역이 무너진 문화정책, 균형과 공정으로 다시 세워야 ..... 97

(제32호) 문화재정 긴축과 공공성 약화 속 문화 생태계 위기 ..... 102

(제31호) 재정·인구·문화 위기 속 지역성과 공동체 중심 문화정책·산업 혁신 필요 ..... 106

(제30호) 한류 성과에도 지속성 위기, 격차·연대 부족 속 균형 문화정책 요구 ..... 111

(제29호) 문화산업 확장 속 재정위기·운영 불투명·저작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과제 ..... 115

(제28호) 문화·경제·사회 전반에서 경쟁력 강화·격차 해소·지속가능 발전·포용적 문화 확산 ..... 119

(제27호) 정부 조직 개편·K컬처 확산·지역재생·AI·복지 강화 등 미래 대응 위한 정책 전환 본격화 .....	123
(제26호) 지방문화 재정·제도 강화, K-컬처 확산·창작 지원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문화 추구 .....	128
(제25호) 한국 문화예술 정책과 산업 구조의 전환기 .....	133
(제24호) K컬처 300조 목표는 재정·인프라 부족과 예술인 지원 미흡으로 공허한 구호될 위험 .....	137
(제23호) 한류 성장과 문화산업 활황 속 사회통합·지속가능성 도전 .....	141
(제22호) 문화권리 확대와 지역균형, 창작 생태계 전환을 위한 문화정책 재구조화 .....	145
(제21호) 한국 사회의 다층적 도전과 문화·도시 재생의 전환점 .....	149
(제20호) 문화·예술·기술 융합과 지역 활성화 속 예산 효율·공공성·지속가능성 강화 요구 증가 .....	153
(제19호) 문화예술 예산 갈등과 사회문제 심화 속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문화 혁신 필요 .....	157
(제18호) 공공·문화·지역의 균형 발전과 포용사회 전환 위한 재정·제도 혁신 본격화 .....	161
(제17호) 재정 위기 속 지역소멸 대응과 문화 분권 실현 간 균형 과제 .....	165
(제16호) 지역문화재단 확산 속 운영 투명성 강화 및 정부 정책 연계 .....	169
(제15호) 사회적 포용과 지역 균형발전, 창의적 자립 기반 구축 .....	173
(제14호) 기후위기·지역 균형·문화 혁신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 .....	177
(제13호) 대선 문화정책 한계 속 경기침체·청년불안·고령사회·AI·문화재생 부각 .....	181
(제12호) 자립을 넘어 공동체 연립, 지역문화 확산과 공공문화 이슈 대두 .....	184
(제11호) 사회 변화 속 문화예술, 글로벌 진출과 지역 활성화 모색 .....	187
(제10호) 저출생·고령화 대응과 문화 인프라 확충, AI·예술 융합을 통해 경제·사회 구조 전환 .....	190
(제09호) 문화예산 감소, 인구 소멸 우려 속 공연·전시 해외 호평 .....	193
(제08호) AI의 등장과 21대 대선이 문화예술계에 미치는 영향 .....	195
(제07호) 사회적 균형을 추구하고 문화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방안 모색 .....	198
(제06호) 티켓플레이션 우려 속 공연시장 성장 국제 미술시장 위축, 1인 가구 증로 문화복지 고민 깊어지는 지자체 .....	200
(제05호) 초 개인화시 확산·경제 위기 속에서 역할 재정립과 지속가능 중심의 정책 전환을 요구받는 문화예술계 .....	203
(제04호) 사회·문화적 변화 속에서 교육·예술 복지 강화와 공간 활용, 축제 예산 문제 등 논의 .....	205
(제03호) 사회적 이슈에 적극 대응이 필요한 문화재단, 신뢰와 지속가능성 자기 고민 필요 .....	207



(제02호) '문화변화'에 직면하게 있는 지역문화 예술계 .....	209
(제01호) '문화한국 2035' 발표 속 문화예술 자원 확대 및 제도 개편 추진, 그러나 재정난으로 축제 중단 위기 .....	211

(제50호) 문화예술 분야 News Clipping “만” 요약 정리

■ 핵심 키워드

구분	핵심 키워드	의미	구분	핵심 키워드	의미
구조	정책 구조 전환	성과 중심 → 생태계 중심	시장	민간 문화시장	공공 중심, 민간 부족
재정	양적 확장	예산 증가, 내실 부족	산업	로컬 콘텐츠 IP	지역 기반 산업화
생태계	예술인 지속가능성	지원 확대, 생계 불안	경제	체류형 관광	체류·소비 구조 전환
공간	유희공간 재생	폐공간의 문화거점화	참여	생활문화 확산	시민·청년 참여 증가
운영	운영 구조	공간 대비 운영 취약	제도	정책 신뢰성	공정성·투명성 문제

■ 핵심 쟁점

- ① “확장은 되었지만 구조는 바뀌었는가” → 문화정책이 “성과 시스템”인지, “생태계 시스템”인지 불명확
  - 문화예산 중에도 행사성과 중심 구조 지속, 단년도 평가, 정량 중심 → 예술 축적 단절 문제 ‘성과 생산 구조는 있으나’ 지속 구조는 부족 등
- ② 예술인 지원의 ‘접근성’ vs ‘지속성’ 괴리 → 지원은 늘었지만, 삶은 안정되지 않음
  - 금융·플랫폼 등 지원 확대는 긍정적, 그러나 여전히 소득·유통·경력 지속 구조는 취약
- ③ 공간은 늘어나는데 ‘운영 구조’는 부재 → “공간 중심 정책 → 운영 중심 정책” 전환 필요
  - 폐교·공장·원도심 재생 급증, 하지만 운영 모델·콘텐츠·수익 구조 부족
- ④ 문화 인프라 확대 vs 시장 구조 붕괴 → 인프라는 있으나 ‘시장’이 없음
  - 공연장 공공 비중(82~93%), 민간 공연시장 사실상 부재, 관객은 수도권으로 이동
- ⑤ 문화의 산업화 vs 지역 생태계 간 긴장 → 문화가 “경제 수단”으로만 소비될 가능성
  - 로컬 IP·관광·상권 연결 강화, 그러나 산업화가 지역 생태계를 대체할 위험
- ⑥ 정책의 외형 확장 vs 운영 리스크 확대 → 문화정책의 지속가능성 문제 본격화
  - 추경 5,597억, 문화 인프라 확대, 동시에 국가부채 6,500조, 노동·기후 리스크 증가
- ⑦ 제도 신뢰성 문제 → “제도 신뢰”가 생태계 안정성을 좌우
  - 예술활동증명 기준 불명확, 문화재단 광고법 적용 논란, 인사·운영 투명성 문제 지속

■ 정책적 시사점

구분	주요 시사점	핵심
구조 전환	• 단기 프로젝트 → 다년도 지원 구조 • 행사 중심 → 창작·유통·정착 구조 설계	성과 생산 → 생태계 구축
예술인	• 창작지원 → 소득·유통·경력관리 통합 • 금융·플랫폼 → 실질 수익 연결 강화	지원 → 생존 구조
공간 정책	• 공간 조성 → 운영·콘텐츠·수익 모델 통합 설계 • 지역 기반 운영 주체 육성	건립 → 운영 중심
시장 구조	• 공공 중심 → 민간 제작·유통 확대 • 공연·전시 자생 시장 구축	공공 공급 → 시장 생태계
로컬 전략	• 관광·소비 → 정주·관계 중심 전환 • 로컬 IP → 공동체 기반 축적 구조	방문 경제 → 관계 경제
지속가능성	• 재정·노동·기후 리스크 반영 정책 설계 • ESG·사회적 가치 체계 편입	정책 지속가능성 확보
제도 신뢰	• 심사 기준 표준화, 재단 운영 투명성 강화, 법 적용 기준 명확화	정책 신뢰 = 생태계 안정성

지금의 문화정책은 ‘확장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임계점에 다다른 것은 아닌가?’

## (제50호) 확장되는 문화정책, 시민과 예술인 중심으로

지난주는 문화예산 확대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식 행사 중심 구조가 지속되는 문제와 함께, 예술인 지원체계의 공정성·문화재단 운영 투명성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동시에 지역 문화거점 확충, 관광소비 확대, K-컬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 ○ 문화예산 급증에도 보여주기식 행사·성과 중심 구조 지속, 시민·예술인 생태계 지원 부족

- [문화사칼럼] 이제는 보여주기식 정책을 끝낼 때다(중도일보, 2026. 04. 01.)
  - 시설·행사 중심 '보여주기식' 문화정책 한계...생활권 문화망·예술인 성장구조·현장 참여 기반 생태계 전환 필요
- 예술의 성과는 누구의 몫인가 - 성과를 요구하는 구조의 불균형(금강일보, 2026. 03. 31.)
  - 23년 운영·17년 지속 축제도 배제...단년도·정량평가 중심 지원구조, 예술 축적 단절 문제 지적
- [특별기고] 숫자가 증명하는 양산 문화의 허상과 실상(웅상뉴스, 2026. 04. 03.)
  - 양산 재정자립도 24.1%(최저)·재정자립도 48.6%↓, 문화예산 402억(2.21%) 급증했으나 홍보·행사 위주, 시민 향유·예술인 지원은 부족
- 김해시, 문화정책 추진...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착수(중도일보, 2026. 04. 02.)
  - 김해시 2026~2030 5개년 문화계획 착수...전문가 40여명 참여, 7개월 용역 후 10월 최종안 확정

## ○ 예술인에 대한 자금·공간·플랫폼 지원을 통한 예술인 지속가능 활동 기반 마련

- [문체부] 예술기업 숨통 틔운다... '2026 예술산업보증' 공모 시작(국약타임즈, 2026. 04. 01.)
  - 예술산업보증 237억 규모...기업당 최대 10억·보증 95~100%, 운전자금·제작비 지원으로 금융 접근성 확대
- 강원문화재단 도내 예술인에 최대 3,000만원 대출 지원(강원일보, 2026. 04. 01.)
  - 강원문화재단 총 7억8,500만원 규모 예술인 융자 지원...최대 3,000만원 대출·3년간 이자 2% 지원
- 충주시, 지역예술인 미술작품 대여사업 추진...작품당 60만원(뉴스1, 2026. 04. 02.)
  - 충주시, 미술 6개 분야 작품 공공전시...작품당 60만원 지급 대여사업 추진
- 익산시, 예술인-수요자 잇는 '문화예술 플랫폼' 운영(국제뉴스, 2026. 04. 02.)
  - 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 수요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익산시 문화예술인 플랫폼'을 운영하며, 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본격 추진
- 강원문화재단 '예술공간 활성화' 지원 나선다(강원일보, 2026. 03. 30.)
  - 강원문화재단 2억원 지원, 연20회 공연·3개월 창작 조건으로 예술공간 운영·창작 통합 지원

## ○ 유희 공간을 활용해 수십억 규모 예산으로 문화·관광 거점으로 전환

- 안성 원도심에 문화 거점 뜬다... '문화로74번길·문화장인학교' 동시 개관(경기신문, 2026. 03. 31.)
  - 안성 원도심 문화로74번길·문화장인학교 개관...체험·교육 결합해 문화도시 기반 강화
- 증평 메리놀 마을창작소 개관... '방치된 공간이 문화 거점으로'(동양일보, 2026. 04. 01.)
  - 증평 메리놀 원도심 마을창작소 25억 투입 584㎡ 규모 개관...예술인 레지던시·주민 참여 운영
- 청주 흥등가 '밤고개'...이제는 예술인 몰리는 공간으로(한겨레, 2026. 03. 31.)
  - 청주 밤고개 102억 투입 흥등가→문화·복지공간 재생...예술인 유입 문화거점 전환
- 연천군, '은대리 문화벽돌공장' 본격 가동...문화관광 거점으로 키운다(프레시안, 2026. 03. 30.)
  - 폐벽돌공장 재생 문화공간 조성, 전시·체험 프로그램으로 체류형 관광 거점 구축
- 폐교가 문화공간으로...청송 남관생활문화센터 '새단장'(신경북뉴스, 2026. 04. 03.)
  - 청송 남관생활문화센터 폐교 재생에 40억 투입·6천㎡ 규모, 전시·체험·예술교육 거점화
- 전북형 K콘텐츠, 폐교 살려 산업화 신호탄(뉴스프리존, 2026. 04. 02.)
  - 폐교 활용 AR체험 '말도의 미스터리', 1.1억 투입 저비용 모델로 관광·지역재생·로컬IP 동시 구현

## ○ 체류형·야간형 축제와 골목·청년 공간 지원으로 관광소비 확대·지역문화 거점화 추진

- "밤이 더 빛난다"... 담양군, 체류형 대나무축제로 관광 판 바꾼다(퍼블릭뉴스통신, 2026. 03. 31.)
  - 담양군 대나무축제 '체류형·야간형' 전환...캐릭터·숙순요리·대술영화관 도입, 교통·안전 개선으로 관광 소비 확대 추진

- “낮엔 체험, 밤엔 벚꽃 빛”… 대릉원 돌담길 축제 4월 3일 개막(겨울매일, 2026. 03. 31.)
  - 경주 대릉원 돌담길 축제(4.3~5) 주야간 운영…벚꽃 라이트·공연·마켓 결합, 체류·소비 확대 및 안전관리 강화
- [기고] '노잼 도시'의 역설(대전일보, 2026. 03. 27.)
  - 대전 국내 여행지 점유율 증가율·숙소 예약 성장률 전국 1위에도 시민 체감 부족으로 인식 전환 필요
- 관악구, 골목 구석구석이 문화 거점으로... 청년 문화복지 공간 운영자 모집(시정일보, 2026. 03. 29.)
  - 관악구 청년 문화존 18개소 모집…운영비 160만원·사용료 30만원 지원

### ○ 지역 상권 활성화와 로컬 브랜드 경쟁력 제고

- “서울만 배불리는 상권 구조 깬다”… 중기부, 맞춤형 전략으로 ‘지역 상권 활력’ 정조준(중앙이코노미뉴스, 2026. 03. 30.)
  - 상권 매출 서울 1억 373만원·지방 2,883만원, 최대 5배 격차…375억 투입·66곳 맞춤형 육성
- [지역이 경쟁력이다] 시흥시의 힙한 골목…지역 문화가 '미술랭'(중앙이코노미뉴스, 2026. 03. 30.)
  - 성심당 연간 1,000만 방문 등 로컬 상점 중심 골목문화가 지역 관광·소비 활성화 견인
- [지역 특산물의 재발견]② 지방 소멸의 대안 '로컬 브랜딩'(THE BUYER, 2026. 04. 02.)
  - 순천문화재단 ‘키우미·피우미·띄우미’ 캐릭터 IP 활용 콘텐츠 제작·상품화 추진 지역 문화산업 확장
- 순천문화재단, 캐릭터 콘텐츠 산업 본격화(THE FACT, 2026. 03. 31.)
  - 순천문화재단 ‘키우미·피우미·띄우미’ 캐릭터 IP 활용 콘텐츠 제작·상품화 추진 지역 문화산업 확장
- CU에 등장한 ‘동작구 빵’…로컬 브랜드 경쟁이 시작됐다(KMJ, 2026. 04. 02.)
  - 동작구 빵 콘테스트→CU 전국 판매…지역스토리 기반 로컬브랜드·유통 결합 모델 확산

### ○ “광역·도시 간 협력으로 지역 문화권 확장과 문화도시 교류 추진

- 속초·고성·양양 3색 결합 광역 문화권 도약(강원도민일보, 2026. 03. 31.)
  - 속초·고성·양양 3개 재단 협약, 공동사업·예산 분담으로 광역 문화권 조성 추진
- 문화로 하나 된 진주·전주…‘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 업무협약(연합뉴스, 2026. 03. 31.)
  - 진주·전주 협약 축제 교차 전시 등 문화자산 교류로 관광·산업 연계 협력 추진

### ○ 대규모 예산·신규 개관으로 공연장·박물관·미술관 확충, 세계적 문화 인프라 성장과 지역 거점 강화

- 내포 문화지형 뒤바꾼다…충남 ‘예술의 전당’ 첫 삽(경향신문, 2026. 04. 02.)
  - 충남 예술의 전당 1,227억 투입 997석 공연장 포함…2030년 개관 목표
- ‘세계 3위’ 국중박 650만명 대박…영국 매체 “가장 눈부신 성장세”(한겨레, 2026. 04. 01.)
  -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객 650만명(전년비 +70%)…세계 3위 기록, 주요 박물관 제치며 급성장
- 63빌딩 옆 ‘퐁피두센터 한화’ 6월4일 개관(경향신문, 2026. 03. 30.)
  - 퐁피두센터 한화, 6월 4일 63빌딩 개관…세계적 소장품 기획전 연 2회 개최
-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4월 4일 개관(경남일보, 2026. 03. 31.)
  -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개관…연면적 5807㎡·3개 전시실, 258점 기증작 기반 복합 문화공간 조성
- ‘물방울 화가’ 김창열 화백 평창동 집, 공공미술공간 재탄생(헤럴드경제, 2026. 03. 31.)
  - 김창열 화백 평창동 자택(511.96㎡)을 공공미술공간으로 조성, 기증작 390점 포함 2609점 보유, 5월 개관 예정
- 공연 못 올리는 이유…‘극장이 없어서’ [문화원정 떠나는 충청민](충청투데이, 2026. 04. 03.)
  - 충청권 공연장 공공비중 82~93.7%, 민간 0~13.2%로 구조 편중…1,000석 이상 극장 부족(대전·세종 등)으로 관객 수도권 유출

### ○ 세계 미술시장 성장 속 서울·지역 글로벌 콘텐츠·IP 지원으로 허브·산업 확장 추진

- 2026년 미술시장은 낙관적 전망, 지정학적 환경이 변수(컬처랩, 2026. 03. 21.)
  - 세계 미술시장 596억달러(4%↑), 경매 207억달러(9%↑)…초고가 거래 30% 증가·비용 5% 상승
- “전쟁중인데…” 미술시장 더 뜨거웠다(뉴스1, 2026. 03. 30.)
  - 아트바젤 홍콩 9만 1,500명, 피카소 61억·리히터 177억 낙찰…불안 속 블루칩 수요 집중

- 아시아미술시장 허브 홍콩에서 서울로(국민일보, 2026. 04. 02.)
  - 홍콩 아트바젤 최고가 61억·프리즈서울 62억, 해외 인사 100→200명...서울, 아시아 미술시장 허브로 부상
- 경남문화예술진흥원, 글로벌 콘텐츠 기업 발굴 나선다(경남도민신문, 2026. 03. 29.)
  - 경남 콘텐츠기업 3년↑ 대상, 제작 최대 5억·재투자 8억 지원...글로벌 IP·해외진출 기업 발굴

#### ○ 문화·관광 투자 확대 속 부채·노동·기후 리스크 겹친 지속가능성 과제

- 문화·관광 추경 예산 5597억원...영화·공연 할인 지원(이데일리, 2026. 03. 31.)
  - 문화·관광 추경 5,597억 편성, 할인 586억·정책자금 3,000억·산업 2,000억 지원
- 빛더미 오른 韓...어느새 6500조 넘었다(매경이코노미, 2026. 03. 31.)
  - 총부채 6500조5843억(+280조·4.5%)...정부부채 1250조·9.8%↑, GDP 대비 48.6%로 급등
- '워라밸' 대신 'N잡러' 전선으로... '통계 밖 노동' 되레 늘었다(국민일보, 2026. 03. 29.)
  - 주52시간에도 여가 4.3시간 정체, 근로시간 146.8시간↓...부업 확대로 '덜 일하고 덜 쉬는' 구조
- "기후위기, 이제 자산 리스크"...유권자 절반 영향 체감(더나은미래, 2026. 04. 01.)
  - 기후위기 자산 영향 51.4% 체감...탄소세 63.9%, 건물규제 59.3% 찬성 등 경제 리스크 인식 확대

#### ○ AI 확산 속 인문학·초상권·규제 논의 강화, 인간 중심 기술 책임 체계 확립 필요

- 이은수 서울대 교수 "인문학, AI 시대에 인간 위한 기술 판별 역할 등으로서 중요"(한국대학신문, 2026. 03. 30.)
  - AI 고도화 속 인문학 역할 강조...인간 중심 기술 평가·규제 필요, 'H(Human)ESG' 등 지표 개발 요구
- 업체란, AI 영화에 초상권 무단 사용 당해... "제작 허락한 바 없다"(인사이트, 2026. 04. 01.)
  - AI 단편영화 '검침원'에 업체란 얼굴·음성 무단 사용...소속사 삭제 조치·법적 대응, 딥페이크 초상권 침해 논란
- 영국·캘리포니아, AI 규제 확대...감사·계약까지 책임 기준 적용(IMPACT ON, 2026. 04. 01.)
  - 영국 FRC 가이드라인·캘리포니아 행정명령, AI 감사·계약에 책임 확대...워터마크 의무·참여 제한 도입

#### ○ 클라우드펀딩 플랫폼 출범으로 지역 문화 프로젝트 지원·참여 확대, 문화 생태계 강화

- '컬처모아' 내달 6일 출범한다...문화클라우드펀딩 플랫폼(뉴시스, 2026. 03. 31.)
  - 경기도 '컬처모아' 4월 6일 출범...도비 5억 투입, 200개 프로젝트 클라우드펀딩으로 문화 생태계 구축

#### ○ 문화재단·기관 운영에서 인력·조직·인사 문제 드러나 효율성·투명성 강화 필요

- 의정부문화관광재단 출범 코앞... '인력 그대로, 업무는 가중'(뉴시스, 2026. 03. 31.)
  - 기존 정원 56명 유지 속 관광업무 추가...결원 11명에도 인력 확충 없어 업무과부하·효율 저하 우려
- 분구 이후 '비대 조직' 우려되는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문화재단(중부일보, 2026. 04. 01.)
  - 검단구 분구로 시설 13곳 감소에도 인력 유지...서구시설공단(574명·200억)·문화재단(47명·23억) 조직 비대화 우려
- 제천시 "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중대한 문제 없어"(연합뉴스, 2026. 04. 02.)
  - 제천문화재단 상임이사 선임 감사 결과 중대 문제 없으나, 임추위 구성 지연으로 기관경고 및 3순위 선임 논란

#### ○ 시민·아마추어 참여와 전통문화 재조명으로 생활예술 확산·문화저변 강화 흐름

- 일본 무대 서는 도모 '나배우'...시민연극의 결실 맺다(강원일보, 2026. 03. 29.)
  - 시민연극 '나배우' 2016년 시작, 12기·100명 배출...10명 배우 일본 교류공연 진출
- 용인문화재단, 아마추어 창작 지원 대폭 확대... '생활예술 틈음' 사업 실시(더센뉴스, 2026. 04. 01.)
  - 용인문화재단 '생활예술 틈음' 사업 추진...개인 150만원·단체 300만원 지원, 4월 7~17일 접수
- "할배 취미인 줄 알았는데"...2030, 주말마다 폭 빠졌다(한국경제, 2026. 03. 31.)
  - 답십리 고미술 상가, SNS 게시물 9.6만건...2030 유입 급증, 빈티지·희소성 소비로 전통문화 재조명
- "여기가 천국이야 극락이야"...기독교인 기자가 본 불교박람회(농민신문, 2026. 04. 02.)
  -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사전등록 4.5만명, 관람객 76%가 2030...굿즈·체험형 콘텐츠로 청년 유입 확대

## ○ 예술교육·장애인 접근성·예술치유 확대로 포용적 문화정책과 국민 삶의 질 향상 추진

- 초등생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정부, 사교육 관리 체계 정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4. 01.)
  - 초등 1인 1예술·스포츠 활동 지원, 중학교 글쓰기·논술 확대, 학원 불법행위 과징금 등으로 사교육비 경감 추진
- 예술강사 재원 갈등…교육감협 “국가책임 강화 필요”(한국교육신문, 2026. 03. 31.)
  - 학교예술강사 사업 특별교부금 전환 논란 속 교육감들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요구
- 경기도교육청, '경기예술교육 아카이브' 본격 가동(데일리안, 2026. 03. 31.)
  - 경기도교육청 6개 기관 협력 '경기예술교육 아카이브' 구축·예술공유학교 111교(연구25·운영76·공동체10)로 학생 맞춤형 예술교육 확대
- 경북교육청, 2026년 '경북형 학교예술교육' 본격 추진(대구·경북뉴스, 2026. 04. 03.)
  - 경북교육청 '1인 1예술' 등 참여형 정책 추진, 예술드림거점·중점학교 운영으로 지역격차 해소 및 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 원주문화재단, 장애예술교육 협력 본격화(새전북신문, 2026. 03. 31.)
  - 원주문화재단 마음사랑병원·예수재활원·전북푸른학교·한사랑정신재활시설과 협약…4~7월 '사이:예술학교' 운영
- 문턱 낮아진 공연장…'이벤트' 넘어 '일상'이 돼야 할 배리어프리 무대데일리안, 2026. 03. 31.)
  - 국립극단 접근성 화차 도입 후 장애인 관객 최대 123%↑…배리어프리 공연, 공공·민간 확산되나 여전히 일부 화차 '이벤트' 수준
- K-컬처, 국민의 '마음건강' 지키는 예술치유로 확장된다(D미디어데일, 2026. 03. 31.)
  - K-컬처, 8개 단체·8개 의원 참여 정책화 논의…예술치유를 고령·고립 대응 공공정책으로 확대

## ○ 지역 예술축제 유통·도시 전략 실험으로 창작·교육·상권 연계, 문화 거점 확장 추진

- 지역 예술축제, 통영국제음악제 시작으로 '유통 거점' 본격화(뉴시스, 2026. 03. 31.)
  - 통영·전주·안산 등 5개 축제, 3개년 사업으로 유통 거점화 추진…창작·교육·시장 연계 확대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거리예술로 도시 전략 실험… 도심 전체 무대로 전환(천지일보, 2026. 04. 02.)
  - 안산국제거리극축제 도시 전체 무대화·시민 참여·글로벌 공연·상권 활성화로 문화 전략 실험

## ○ K-컬처 경쟁력은 개방성과 다양성, 해외 호감도 확산으로 글로벌 문화 영향력 강화

- 김민석 총리 "K-컬처 경쟁력은 개방성과 다양성"(대전일보, 2026. 03. 31.)
  - 총리, K-컬처 경쟁력은 개방성·다양성 강조…경주 이어 추가 관광거점 육성 필요 제시
- 문체부, '2026 해외한류실태조사' 결과 발표…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 69.7%(지디넷코리아, 2026. 03. 30.)
  - 해외 30개국 2만 7,400명 조사, 한류 호감도 69.7%·부정 37.5%…월평균 14.7시간 소비

## ○ “지역경제 격차와 노동 구조 변화, 제도 개선 과제 부각

- 2025년 4/4분기 및 연간 실질 지역내총생산(잠정) 보도자료(실험적통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3. 30.)
  - 2025년 서비스업 전국 2.7%↑, 서울 4.2%·세종 3.2% 성장, 강원 -0.1% 감소
- 파주시의회 "공공기관 경영에 노동자 참여 제도화"(뉴시스, 2026. 03. 30.)
  - 노동이사제 조례 가결…이사회 참여로 경영 투명성 강화, 권한·책임 동등 부여
- [단독] 비정규직 28만 늘었는데…4시간 더 일해야 정규직 월급[저임금의 늪②](THE FACT, 2026. 03. 31.)
  - 비정규직 28만 증가에도 임금은 최저 수준 정체, 정규직과 격차 180만원…고용은 늘고 구조는 악화
- 60→65세 정년연장, 이르면 7월 입법…5월 중 노사안 받아 절충(동행미디어 시대, 2026. 04. 02.)
  - 정년 60→65세, 5월 20일까지 노사안 제출·6월 절충 후 7~8월 입법 추진

## ○ 지역공동체 자산화 제도로 공공조달·금융 연계, 지역경제 선순환·재투자 구조 강화

- 광명시, '지역공동체 자산화' 조례 제정…수도권 첫 경제 선순환 제도화(데일리안, 2026. 04. 02.)
  - 광명시 제299회 임시회서 조례 의결…공공조달·금융·이차보전 포함 지역경제 순환·재투자 체계 제도화

## ○ 사회적 자본, 관계망·평판을 경제적 가치로 전환하는 경쟁력 구조

- 사교계의 만화경 : 비즈니스 네트워킹과 사회적 자본[소통](뉴스토마토, 2026. 04. 03.)
  - 사회적 자본은 관계망·평판이 경제적 가치로 전환되는 구조, 약한 연결·플랫폼 중개가 경쟁력 핵심

- 한국 SDG 이행보고서, 빈곤·문해력·평생학습 지표로 사회 격차 완화와 지속가능 발전 과제 제시
  - 한국의 SDG 이행보고서 2026 발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6. 03. 30.)
    - 빈곤율 15.3%, 성인 문해력 OECD 평균 ↓, 평생학습 참여율 33.1%로 격차 완화
- 벚꽃 조기개화·폭염 경고로 기후변화 심각성 드러나며 여름 고온·재난 대비 필요성 강조
  - “여보, 벌써 벚꽃 폈다” 좋아했는데...“올여름 각오해라” 지구의 경고(서울경제, 2026. 03. 31.)
    - 벚꽃 10일 조기개화·4월 고온확률 60%...작년 평균 14.9℃, 2025년 여름 25.7℃ ‘역대 최고’ 폭염 경고
- (6.3 지방선거) ①지역별 문화·관광·예술 공약 통해 체류형 경제·청년 지원·문화복합공간 등 도시 경쟁력 강화
  - 윤병태 나주시장 예비후보 ‘밤이 빛나는 원도심’ 공약 발표(광남일보, 2026. 03. 30.)
    - 나주 원도심 야간관광·역세권 개발·문화복합공간 조성으로 체류형 경제 활성화 추진
  - 박수현, 역사문화관광 연계 충남 공약 발표...15개 시·군별 발전안도 제시(서산시대, 2026. 03. 30.)
    - 역사·문화 자산을 야간경제와 결합해 체류형 관광 전환...충남 15개 시군 산업·관광 맞춤 발전전략 제시
  - 이장섭 “문화가 일상 되는 청주”...문화 공약 5대 과제 발표(동양일보, 2026. 03. 31.)
    - 청주문화예술페스티벌·유휴공간 공연장 등 5대 공약...19~20세 청년 차등지원·예술인 등록제 도입
- (6.3 지방선거) ②예술인 권익 보장·기본소득 추진과 문화재단 운영 투명성 논란으로 제도 개선 필요성 부각
  - 주낙영 “지역 예술인 무대 제도적 보장”...문화예술 활성화 공약(드림저널, 2026. 04. 01.)
    - 지역예술인 공연 5% 의무배정·청년 30% 할당, AI 공정배분 도입으로 기회 균등·독점 방지
  - 위성곤, 2027년 ‘예술인 기본소득’ 시동(파이낸셜뉴스, 2026. 04. 01.)
    - 80자 요약: 하남문화재단 축제 홍보비 법 위반 집행 논란...언론진흥재단 거치지 않고 내부 처리
- (6.3 지방선거) ③서울시장 후보들 BTS 공연 계기 대형 공연장 공약 경쟁, K-컬처 인프라 확충 필요성 부각
  - 박주민·정원오·전현희 “BTS 공연장 짓겠다”...접근법은 미묘하게 달라(아시아경제, 2026. 04. 01.)
    - BTS 공연 계기 서울시장 후보들 공연장 필요성 공감...상암 아레나·7만석 돔 등 대형 공연장 공약 경쟁
- (6.3 지방선거) ④ 예술인 중심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
  - 조지훈 예비후보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하겠다”(시사전북닷컴, 2026. 04. 03.)
    - 조지훈 후보 예술인 중심·공간·플랫폼 강화 등 4대 정책 제시...어린이 공연장·수당 확대·쿼터제 도입 추진

## ISSUE

## 예술인 지원체계의 공정성과 문화재단 운영 투명성

- 예술활동증명 기준 모호·분야별 승인을 격차로 신진예술인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 부각
  - ‘브로콜리너마저’마저 반려...예술활동증명, 이렇게 어렵고 모호할 일인가요(경향신문, 2026. 04. 02.)
    - 히트곡 밴드도 반려...예술활동증명 1.8만건 급증 속 기준 모호·지원연계 혼란
  - ‘연예’는 50%, ‘건축’은 10%...분야별로 웃고 우는 신진예술인(국민일보, 2026. 04. 02.)
    - 신진예술인 증명 승인율, 연예 54%·건축 10%...문체부 TF로 심의 기준 개선 추진
- 출연기관이며, 공직유관단체인 문화재단에 “광고법”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가?
  - 하남문화재단, 언론사 홍보비 예산 주먹구구 집행 논란(중도일보, 2026. 04. 02.)
    - 전북 문화예술지원 19.5억 심사 논란...중복수혜·대표단체 탈락, 주관적 평가에 공정성 불신
  - 재경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운영과 업무 전반 투명성·공공성 제고 전제”(조선일보, 2026. 01. 29.)
    - 공운위,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올해 342개 기관 지정

**(한주를 정리하며) 확장되는 문화정책, 시민과 예술인 중심으로**

지난주 문화·예술 분야의 흐름을 정리하면, 전반적으로 예산 확대와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있었지만 동시에 구조적 과제와 제도적 문제도 함께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먼저, 문화예산이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이 여전히 행사와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단년도 지원과 정량평가 위주의 구조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축제와 예술 활동을 배제하는 결과를 낳고 있으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권 문화망이나 예술인 성장 기반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양산시 사례처럼 수백억 규모의 예산이 홍보와 행사에 집중되는 현실은 구조적 한계를 보여줍니다.

이와 함께 예술인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을 위한 지원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체부의 예술산업보증, 강원문화재단의 용자 지원, 충주시의 작품 대여사업, 익산시의 온라인 플랫폼 운영 등은 예술인들의 금융 접근성과 창작 기회를 넓히려는 시도입니다. 또한 폐교나 폐공장, 원도심 공간을 문화거점으로 재생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며, 단순한 공간 활용을 넘어 체류형 관광과 지역재생, 로컬 IP 산업화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관광소비 확대를 위한 체류형·야간형 축제 전환도 눈에 띕니다. 담양 대나무축제와 경주 돌담길 축제는 주야간 운영을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소비를 확대하려는 전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악구의 청년 문화복지 공간 지원, 중기부의 지역 상권 맞춤형 육성 정책은 문화와 경제를 결합한 새로운 성장 모델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문화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흐름입니다. 충남 예술의 전당, 김해시립김영원미술관, 풍피두센터 한화 개관 등은 지역 거점과 세계적 문화 인프라를 동시에 강화하는 사례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관람객 650만 명을 기록하며 세계 3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한국 문화 인프라의 국제적 위상을 보여줍니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세계 미술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서울이 홍콩을 대신해 아시아 미술시장 허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컬처 경쟁력의 핵심을 개방성과 다양성으로 강조하며, 해외 호감도 확산을 기반으로 글로벌 영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확대 속에서 지속가능성의 리스크도 함께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급증, 노동 구조 변화, 기후위기 등은 문화·관광 산업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예술활동증명 기준의 모호성과 분야별 승인을 격차는 신진예술인 지원체계 개선 필요성을 보여주며, 하남문화재단 홍보비 집행 논란은 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습니다.

한편 생활예술 확산과 포용적 문화정책도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시민연극, 아마추어 창작 지원, 전통문화 재조명 등은 생활예술의 저변을 넓히고 있으며, 장애인 접근성 확대와 예술치유 정책화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1예술·스포츠' 정책과 예술교육 아카이브 구축은 교육 현장에서 예술 참여를 제도화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됩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주는 예산 확대와 인프라 확충이라는 긍정적 성과와 함께, 보여주기식 구조와 지원체계 불공정, 재단 운영 투명성 부족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동시에 드러난 시기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술인 중심 생태계 전환, 지역 상권과 문화의 결합, 그리고 지속가능성 확보가 핵심 과제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문화정책의 방향을 시민과 예술인 중심으로 전환하는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양적 팽창을 거듭하는 K-컬처 인프라가 과연 예술인의 ‘지속 가능한 삶’과 지역의 ‘자생적 생태계’라는 내실을 채우는 동력이 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끝으로, 지난 한 주의 흐름을 정리해봅니다.